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99호 [루게 제24612호] 주체103(2014)년 7월 18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천강 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  
호기업소의 성천강  
그물공장과 수지관  
직장을 현지지도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  
치국장인 조선인민  
군 차수 황병서 동  
지, 조선로동당 중앙  
위원회 부장 한광상  
동지, 국방위원회 설  
계국장인 특군중장  
마원춘 동지가 동행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  
에서 해당 부문과 공장의 일군들이  
맞이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래양의  
모습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일  
군들과 종업원들이 기업소에 어려웠  
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여갈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영활동정형을 구  
체적으로 료해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는 기업소에서 당의  
령도밑에 새로 건설  
한 현대적인 그물공  
장과 수지관직장의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투쟁을 즐기  
게 벌리고있는데 대  
하여 높이 평가하시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파수업과 수산업,  
건설부문을 비롯  
한 여러 부문들에  
철실히 필요한 그물  
과 바줄, 수지관들  
을 생산하고있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은 규모  
는 비록 크지 않  
지만

일련안고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였으며 교양마당과 주변환경을  
새롭게 일신시킨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생산장성의 열쇠는 종업원들의 사상  
정신상태에 있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로 꾸린 연혁소개실을 돌아보  
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에  
의하여 창립된 기업소가 위대한 장군  
님의 손길아래 지난 기간 인민경제발  
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에 그  
물공장과 수지관직장까지 꾸려잡  
으로써 기업소가 부강조국건설에서  
한몫 단단히 하는 종합공장으로서  
의 체모를 갖추었다고 하시면서 지  
난해 이곳을 돌아보시던 날을 회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돌아보시면서 생산 및

만 나라의 귀중한 재부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  
금 그물과 바줄, 수지관에 대한 수요  
가 날로 높아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에 의거하여  
더 많은 제품들을 생산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예술선전대공연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자기들의 공연을 지도받게 된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지닌 예술선전대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뜨거운 흥미의 정을 안고 무대에 나온 소개자는 전례없는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서도 전선시찰의 길에 계시며 군력강화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가시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대련합부대 장병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최대의 경의와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예술선전대는 공연무대에 남성중창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는다》, 여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 시랑송 《원수님은 화선에 계신다》, 여성6중창 《인민의 환희》, 트럼베트와 노래 《총성의 대답소리 <알았습니다>》, 토막이야기 《훈련장의 두 분대장》, 남성독창과 방창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 기타5병창 《7.27행진곡》, 시와 이야기 《사회주의불빛과 초병의 눈빛》, 합창 《우리의 총장우에 평화가 있다》 등 여러가지 형식의 다채로운 종목들을

올렸다.

공연을 통하여 출연자들은 찬바람, 눈비를 다 맞으며 이른새벽에도 깊은 밤에도 화선천리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백두산 혁명강군의 필승불패의 위력과 최고사령관동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군무생활의 나날을 이어가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열렬한 총정의 마음을 감명깊이 펼쳐보였다.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도 깨뜨릴수 없다는것을 노래와 시에 담았으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이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것을 삶의 영예로, 본분으로 여기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어가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갈 철석의 맹세를 뚜렷이 과시하였다.

또한 총잡은 병사가 지켜선 곳은 그 어디나 최전연이고 최전방이기에 순간순간을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원수들의 도발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싸움준비 완성을 위해 군복을 땀으로 적시고있는 대련합부대 장병들의 사상정신적품모를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

인민군 제324대련합부대 예술선전대원들이 사상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공연을 진행하였다고 하시면서 예술선전대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선전활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커다란 감회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선전은 군인들의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예술선전대활동에서 지침으로 삼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본사정지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성천강 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그러자면 원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생산과 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컴퓨터에 의한 통합생산체계를 더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여러가지 용도에 쓰이는 그물과 바줄, 수지관, 편결판들도 생산할수 있게 필요한 설비들을 보장하고 생산건물을 확장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성천강그물공장과 수지관직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사용자들속에서 호평을 받을수 있게 그 질을 더욱 높이고 상품포장도 잘하며 제품전시실을 새로 꾸리는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새로 개건한 문화회관은

돌아보시면서 좌석수는 얼마인가, 리용은 어떻게 하고있는가를 물어주시고 회관을 잘 꾸렸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회관부도에 게시한 직관물들을 보시고 종업원들속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특히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반제, 반미계급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양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1521호기업소의 전체 종업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에 또다시 찾아오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할 총정의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지보도반



시 초

미래가 마중오는 거리에서

격전장의 하루

불같은 손길들이 또 하루의 일력을 번진다 원수님을 모시었던 그 격정을 안고 위훈의 밤을 밝힌 건설장에 아침해가 솟아오르네

이 시각도 부강조국의 깨일을 안고 불철주야 강행군으로 동서천리를 이어가시는 원수님 그이의 전선시간을 안고 준공의 10월을 향해가는 기적의 거리여

나는 위성과 이야기한다

잠들 줄 모르는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밤 별빛이 내려앉은 창가에서 나는 저 우주의 위성과 이야기 한다

보느냐 이 불빛을 이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불야경을 우리의 사랑스런 인공지구위성이 너의 모국에 새 거리가 일떠선다 거리의 이름도 <위성>!

보느냐 이 불빛을

리 창 식

백날로 천날로 주름잡아 번개처럼 내닫는 건설의 격전장이 땅에 흐르는 시간을 분분초초로 재일수 있으나

오, 세월을 따라 흐르는 이 땅의 하루가 아니다 세월을 이끌고 풍풍처럼 내닫는 원수님의 전선시간으로 흐르는 하루 세기를 딛고 부강조국의 깨일을 마중오는 이 땅에 나래치고 있다!

한 동 선

새 거리에 명룡할 칠색등 무지개 빛을 얼마나 아름다우나 너를 안아올린 조국—원수님의 나라 원수님의 과학자들이 여기서 살거란다

이제 이 거리의 불빛들은 지혜의 눈빛이 되어 창조의 새날을 부르리라 조국의 경사가 될 새 발명의 고교성을 안고 가로수들도 푸른 잎새 흔들리라

강성국가의 래일이 어그러오는 곳 여기서 이제 날아오르리라 인민생활향상의 다계단로케트들이 세계를 뒤흔칠 건설장의 불빛—그 불빛이래 시를 쓰며 내 눈을

문명하게, 부유하게, 아름답게! 믿어도 굳게 믿는 래일을 불려 꺼질 줄 모르는 건설장의 불빛—그 불빛이래 시를 쓰며 내 눈을 원수님 주신 사랑 너무나 거위셔...

병사의 웃음

아득히 타고앉은 저 만장아 승리의 고지런웃 빨간 평창 애젊은 병사 장한 웃음 하늘가에 휘뿌리네

이 마감총각이 날아오른 스무몇새 낮과 밤 온 세상에 자랑들이 전하는거라네 351고지들 단숨에 타고앉은 영웅전선들의 그 15분처럼

외곽별 뜨거운 총막우에서 마시던 군용물통의 물은 어이 그리 달았던가 한가슴에 안아올린 새 거리와 함께 일당백용맹도 하늘에 닿은 병사

저 하늘에 빛나는 위훈의 별 되고싶은 열여덟 꽃나이 그 하늘에 보란듯이 새기는거라네 이제는 꿈 아닌 영웅의 모습을

건설장의 당부

소년축구선수들이 왔다고 속도원축구소년단야영소에서 원수님을 모시고 축구경기를 한 꼬마축구선수들이 왔다고 떠들썩 설레이는 건설장

아득한 밤편우에서

세날의 환희가 한가슴에 베풀어... 오,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밤 하늘가에 빨친 리상의 침탑우에서 형형색색 어지러운 자본주의의 화광을

발아래 굽어보며 나는 우리 위성과 말하노라—위성아, 이 불빛을 사진찍어 세계에 전송하라 조선은 지구에서 제일 밝은 나라다!

박 정 철

금시 이 거리를 지나 위훈의 자욱 또다시 내졌으면 걸음걸음 솟아오를 최한한 창조 물들 문명의 기념비들

군화에 묻은 물발 툭툭 떨어 돌격의 김우에 나서면 침략의 아성을 정검돌인양 밝고 넘어서

장하구나 문명국의 대문도 조국통일광장도 눈앞에 지적 용맹의 하늘가에 서있는 병사

그 웃음 비껴안고 아침해를 황홀히 불타누나 위성과학자거리건설장의 일당백 병사가 하늘가에 날리는 승리의 기발처럼!

박 상 민

미장칼을 흔들며 반기는 병사들 어느날 달려와 축구장을 땀겨같이 내내던 꼬마들의 작은 발을 쫓아보는 사람들

복받은 아이들아 너희들은 정녕 무엇이었어

은 건설장이 펼쳐나 너희들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두들실 떠받드는것이나

그리온 원수님의 사랑과 정을 함복 몸이 지니고 온 사랑둥이들 미미의 체육강국의 나어린 왕자들이 그 누가 수만금의 값진 보화를 안고 왔단들

원수님 정에 사는 우리의 심장에 그리움의 불을 지퍼준 나어린 불새들이 너희들은

고 요 의

이제 10월이 오면 건설장의 그날이 오면 끈질긴 보금자리를 집어라 했건만 창가에 스치는 소음까지도 다 막아준 행복의 무지개로 비끼리라

뜨거우에 가슴졌노라 과학자들의 사색을 깨칠새라 불밝은 창너머로 흘러오는 철차의 기적소리를 두고 그리고 마음쓰시던 우리 장군님

장군님의 그 마음으로 새 거리의 리를 다지고 주추를 놓기 전에 철길과 도로까지 멀리로 옮겨주시길 우리 원수님의 그 사랑이 고요로 흐를 이 거리

별의 거리가 솟는다

창가마다 햇빛부신 이 거리에 내가 살 집도 있는듯 한달음에 총계를 올라 금시라도 문을 열고싶은 이 집, 이 거리

내 벌써 안아보노라 총을 희한한 새 보금자리를

우리의 힘, 우리의 자랑이다

마음껏 날으리라 희망의 저 푸른 하늘로 나래치며 일떠선 과학도시 준공의 그날

이 과학의 도시가 떠올릴 우리의 위성 과학의 별빛이 우주를 덮을 때 너희들은 축구계의 혜성이 되어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거라

김 진 주

세상에 있었던가 찬바람 눈비를 막아주는 마스한 보금자리를 집어라 했건만 창가에 스치는 소음까지도 다 막아준 그런 집, 그런 거리가

위성과학자거리여 너는 진정 삶의 보금자리만이 아닌 과학의 만리대공을 높이 날을 끝없는 탐구와 사색의 세계 무한한 창조의 세계

오, 그 고요의 세계속에 소리치며 태어나고태어나리라 번역의 문을 여는 창조의 새날들이 최첨단 명마루에도 나래쳐오르는 내 조국의 눈부신 기적들이 가슴벅차도록 이 땅을 위흔들리라

주 광 일

궁궐같은 새 과학기지를 황홀한 불야경을 이룬 과학도시의 불밝은 그림들을

고난의 그 나날 탐구의 창가에 불리던 찬서리를 자신의 체온으로 다 녹여주고있고

장군님의 그 마음이 이 거리를 떠받든것 아니더냐

눈부신 별빛들을 새 거리의 이름에 얹어주시며 한밤을 지새우신 원수님 새벽문 열고 찬결날 달려오신 전선같은 그 사랑이 켜친 아름다운 별바다, 별의 거리

우려나는 꿈도 것을 편 행복도 불타는 열정도 창가마다 별이 되어 웃는 거리

최첨단을 향해 가는 주인공들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탐구의 불빛으로 래일을 밝히 라고

여기서 세계를 앞서 날으며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대문을 열어

이 거리의 탄생과 더불어 사람들은 보게 되리

이 거리의 탄생과 더불어 사람들은 보게 되리

이 거리의 탄생과 더불어 사람들은 보게 되리

오, 무궁한 태양야페 내 나라 내 조국의 광명한 미래를 부르며 세상에서 제일 밝고 따뜻한 별의 거리가 솟는다 위성과학자거리가 솟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충렬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 최일경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참가와 관련한 북남실무회담이 있었다

【판문점 7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와 남북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사이의 실무회담이 17일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해양국의 주인답게 물의 수영능력을 갖추자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확립되고 종업원들에 대한 후생사업을 잘하고있는 것으로 하여 전국에 소문난 남흥청년화합연합기업소에서는 수영영풍도 세차게 일고있다.

창광원에 차넘치는 배움의 열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고 강이 많기 때문에 누구나 다 수영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와 색깔의 수영복과 수영모자를 착용하고 물안경까지 끼고 기백있게 물에 뛰어드는 청년들, 숙련된 솜씨로 물을 기운차게 헤가르는 청년의 사람들, 그런가하면 수영기초동작부터 이악하게 편마해가는 각종 초근로자들...

은을 내는 수영강습

남흥청년화합연합기업소에서 수영을 하고있었다. 우리를 안내하던 관리원이 지금 수영장에서 해양체육월간사업계획에 따라 연합기업소적인 수영강습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주시었다.

올해 목표는 9련승

서성구역 3중영예의 붉은기 장정소학교에서 교원인 건설화동무는 수영소사업에 더욱 불같은 열정을 바쳐나가고 있다.

학생들의 수영능력을 높여주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중구역 창광고급중학교에서—



학생들의 수영능력을 높여주며 몸과 마음을 단련해나가도록 하고있다. —중구역 창광고급중학교에서—

충렬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들 도착

김세정후방장과 리준식부학 부장을 각각 단장으로 하는 립민직 조국통일범민족연합회의 본부장 일행이 17일 평양을 떠나갔다.

해외동포들이 떠나갔다

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 고문대표단과 신길을 대표조선고급학교 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고급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갔다.



